

市교육청, 올해 '질문하는 학교' 25개교 선정

2024년 도입...작년까지 3곳 시범운영 초 10곳·중 6곳·고 9곳 수업모델 개발 중등 수업·평가 전문가 100인 양성도

광주시교육청이 학생들의 자발적 질문과 토론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질문하는 학교'를 확대 운영한다.

21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질문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수업 중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글로 표현하거나 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4년 도입했다.

시행 첫해와 지난해 3개 학교를 선도학교로 지정하고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초·중·고 총 25개교로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학교급별로 차별화된 과제를 부여해 교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초등학교는 광주계림초 등 10개교가, 중학교는 각화중 등 6개교가, 고등학교는 수안고 등 9개교가 선정됐다.

기존 선도학교가 질문 중심의 수업 모델을 고도화하고 지역 거점학교로서 역할을 했다면, 올해 새롭게 지정된 선도학교들은 학교 여건에 맞는 질문 중심 수업 모델을 개발하고 질문 문화를 정착시킨다.

선도학교는 ▲질문하는 학교문화 조성 ▲질문 배우기 ▲질문으로 배우기 ▲질문하며 살기 등 4개 지정과제 중 1개 이상을 필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학교 자체적으로 자율 운영 과제를 추가할 수도 있다.

'질문하는 학교문화 조성'은 게시판, 질문 판

련 규칙 제정, 교사 공동체 문화 조성 등으로 추진되며, '질문 배우기'는 학교급별 질문 생성 방법, 디지털 질문 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의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질문으로 배우기'는 학생 주도 탐구수업 모델, 학생 질문 기반 교과 수업 등으로, '질문하며 살기'는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프로젝트, 질문 공책 등 성장활동으로 각각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학교 관리자와 교사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찾아가는 질문 콘서트', 컨설팅, 학교 권역별 연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선도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질문 문화가 확산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실 수업·평가의 질적 도약을 위해 '중등 수업·평가 전문가 100인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 수업·평가 전문가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학생의 사고를 자극하고 질문을 이끌어내는 퍼실리테이터로서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역

할을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탐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철영 교육국장은 "교육의 본질은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있고, 그 시작은 바로 '질문'에 있다"며 "교사들이 행정적 부담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사고를 깨우는 교육 전문가로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선욱기자



"지구를 살려요" 지구의 날을 하루 앞둔 21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아이들과 구청 기후환경과 직원들이 북구청 교차로에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와 탄소중립 손팻말을 들고 '지구 살리기 길거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조영권 기자

전남대 '박사과정 첫 학기 등록금 면제' 확대

전남대가 박사과정 등록금 면제 대상을 전면 확대한다.

21일 전남대학교에 따르면 2026학년도 후기 입학생부터 박사과정 첫 학기 등록금 면제 대상을 기존 본교 졸업생에서 타교 출신과 외국인을 포함한 전일제 신입생으로 넓힌다.

전남대는 앞서 지난해 10월 본교 졸업생 박사과정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박사 도약장학금'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 확대는 도입 6개월 만에 이뤄진 조치로, 적용 범위를 전면 개방한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전남대 박사과정에 입학하는 전일제 신입생은 출신 대학이나 국적과 관계없이 첫 학기 등록금 부담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대학은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는 대신 연구 몰입 환경을 강화해 우수 연구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백선욱기자

GIST-전남대-켄텍 '한국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구축

전남광주 통합 대응...심포지엄 개최

호남권 미래 과학기술 혁신거점 육성

반도체·AI·에너지 분야 등 협력 공유

광주과학기술원(GIST·지스트)과 전남대학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켄텍)가 연구 협력 기반을 강화하며 '한국형 리서치 트라이앵글' 구축을 본격화한다.

21일 GIST에 따르면 전남 교내 오통관에서 전남대, 켄텍과 함께 '전남광주 통합시대, 리서치 트라이앵글 심포지엄(Research Triangle Symposium)'을 개최했다.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롤리(Raleigh)·더럼(Durham)·채플힐(Chapel Hill) 지역을 삼각형으로 연결한 연구·산학협력 생태계인 '리서치 트라이앵글 파크' 모델에서 착안한 개념이다.

'한국형 리서치 트라이앵글'은 이근배 전남대 총장이 제안한 것으로, 각 대학의 특화 연구 역량을 결집해 호남권 미래 과학기술 혁신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협력 모델이다.

특히 반도체·인공지능(AI)·에너지 등 호남권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공동 연구, 인재 양성, 기술사업화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지역 주도 혁신 플랫폼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심포지엄에는 GIST에서는 임기철 총장과 박찬호 연구처장이, 전남대에서는 이근배 총장과 이봉기 산학협력부처장이, 켄텍에서는 박진호

총장직무대행과 문승일 연구원장, 김창희 연구처장이 참석했다.

또 전남대 강원원 경제부처사와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김기숙 광주시 교육청년국장, 오익현 전남테크노파크 원장, 이철승 광주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오상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단장 등 주요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발표 세션에서는 GIST·전남대·켄텍의 반도체·AI·에너지 분야 연구자들이 최신 연구 동향과 협력 전략을 발표했다.

전남대 류상원·김찬수 교수와 이규빈 GIST AI연구소 소장, 켄텍 안수명·이진호 교수 등은 전남·광주가 보유한 산업·연구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비전을 제안했다. /백선욱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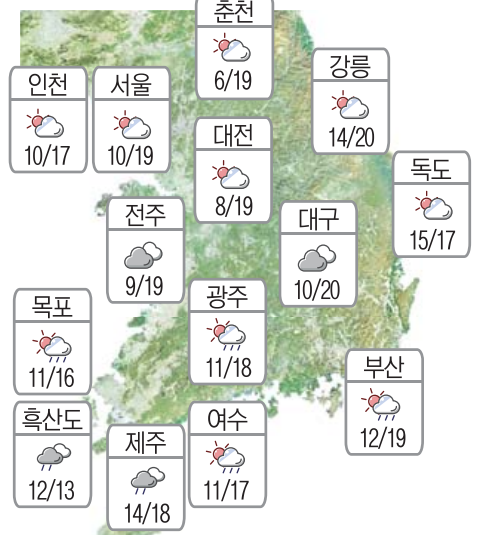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52 해질 19:11 🌧달돋음 09:26 달짐 —:—

●광주·전남 날씨

광주	흐려져비	11/18	장성	흐려져비	10/17
목포	흐려져비	11/16	보성	구름비	9/17
여수	흐려져비	11/17	함평	흐려져비	9/16
나주	흐려져비	9/17	순천	흐려져비	10/18
완도	구름비	11/16	영광	흐려져비	9/16
구례	흐려져비	10/18	진도	구름비	12/16
강진	구름비	9/17	흑산도	구름비	12/13
해남	구름비	10/17	고흥	흐려져비	9/17
광양	흐려져비	9/18	담양	흐려져비	10/17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서해 앞바다	0.5-0.5	0.5-1.0
남해 앞바다(북)	0.5-1.5	0.5-1.5
남해 앞바다(남)	0.5-1.5	1.0-2.0
남해 앞바다	0.5-0.5	0.5-1.0
남해 앞바다(동)	0.5-1.5	1.0-2.0
남해 앞바다(서)	0.5-1.0	0.5-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목포	05:46	10:47	여수	00:15	06:17	00:54	07:38
	17:39	22:47		12:12	18:21	12:45	19:26

●생활정보지수

👜 **니들이 40** 🚗 **세차 30**
우산 챙기세요 세차는 다음으로

🧤 **빨래 40** 🏃 **운동 40**
실내건조 좋아요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23일(목)	24일(금)	25일(토)
☁(12/21)	☀(9/24)	☀(8/25)
구름많음	맑음	맑음
26일(일)	27일(월)	28일(화)
☁(10/23)	☁(12/21)	☁(9/21)
구름조금	구름많음	구름조금

▶ 날씨안내 : 국번없이 131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볼거리, 살거리, 먹거리 가득한

무안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무안군

광고문의 : 062)650-2099